

한 층의 법이라고 알려주지 않는다. 내가 설법할 때 나의 층층의 신체, 줄곧 무한(無限)에 이르기까지 모두 말하고 있는데, 당신들이 어느 한 층의 것이라고 말하겠는가? 당신들이 어느 한 층에서 내가 말한 법을 이해했든, 단지 당신은 그 한 층 가운데서 이해한 것일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내가 방금 말한 인체대응을 포함하여 그것은 결코 불조(佛祖)가 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전체 우주체계, 천체체계, 대궁체계의 원용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과거 구(舊) 우주 층의 신이 생명형식에 의해 국한되는 문제를 변화시켰다. 그것은 상당히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무엇을 보았다고 해서 “오, 바로 이것이다!”라고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거나 “오,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지 말라. 아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당신들 현재상의 기초에서 인식한 것이다.

제자: 동수를 격려하여 나와서 각종 교류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동수들은, 나오면 법 공부할 시간이 없다하며, 진상을 바로 알리는 것은 집에서든 마땅가지로 할 수 있고, 오히려 더욱 잘하고 더욱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부: 만약 대법제자가 정말로 오늘날 정법제자에게 요구하는 그 상태까지 할 수 있다면, 그럼 당신은 곧 하라.

있으며, 그들 자신이 이번 기연(機緣)을 잃지 말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로 이렇게 생각했다. (박수)

제자: 우리들은 어떻게 정체적인 제고, 정체적인 승화를 더욱 잘할 수 있습니까?

사부: 여러분이 서로 협력을 잘하면 된다. 매 사람의 경지가 같지 않으므로 내가 지금 당신들에게 알려주는데, 사부는 일부 수련생과 수련생 사이의 차이가 이미 벌어진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미 차이가 벌어졌다. 막바지로 갈수록 차이가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식 상에서 틀림없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관전은 당신들이 어떻게 잘 협력하는가 하는 것이며, 어떻게 조화를 잘 이루는가에 있다.

제자: 라틴아메리카의 정법 중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 라틴아메리카는 어떻게 해야 더욱 잘할 수 있습니까?

사부: 일부 지역의 수련생은 환경과 신분, 심지어 경제적인 영향으로 법을 실증함에 아주 고생스러운 것을 사부는 다 알고 있다. 어쨌든 당신들은 그곳 생명들의 희망이다! 장래에 당신들은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수) 지금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 대법제자가 없다면 그들로서는 대단히 큰

곤란이 조성될 것인데, 최소한 이러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곳에 대법제자가 얼마나 있든지 그 민족으로서는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

어느 날 수련생이 나에게, 무엇을 ‘부처의 은혜가 가없이 넓다(佛恩浩蕩)’라고 하는 것인지 물었다. 사람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부처가 대자대비(大慈大悲)하고 고생 속에서 구원해주고 고난에서 구제해주는 이것이 바로 부처의 은혜가 가없이 넓다(佛恩浩蕩)는 것인데, 사람의 인식은 바로 이처럼 천박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당신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민족, 어느 지역, 어느 나라이든지 상관없이, 보기에는 당신이 평범하고 평범한 속인(常人)이고 당신은 한 생명이지만, 사실 당신과 인연이 있는 사람이 다 있다. 단지 이런 것만이 아니다. 나는 이전에 늘 여러분에게 말했다. 입자는 층층의 무한한 미시적 입자가 그 위의 한 층 입자를 구성했고, 또 위의 한 층 입자가 더욱 위의 한 층 입자를 구성하면서 끊임없이 이처럼 큰 입자를 조합했다. 따라서 매 한 층 입자 중에는 모두 끝없이 많은 생명이 있다. 가령 그 소립자(小粒子)를 확대해 보면 마치 지구와도 같고, 마치 별나라와도 같이 그 위에는 무수한 생명들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인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얼마나 많은가? 이것은 당신 자신의 범위 내의 것이다. 사람은 신

이 너무 부족한 원인이 아닙니까?

사부: 당신이 『전법륜』 속의 글자에서 오늘날 내가 당신에게 정법하라고 하는 일이 있는지 보아내려고 생각하면 당신은 영원히 보아내지 못한다. 대법을 수련하는 한 제자로서, 정법시기의 대법제자로서 당신이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전법륜』 속에서 당신은 곧 인식할 수 있으며, 법리에서부터 당신은 알 수 있다. 비단 이 단계까지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는 당신이 계속 책을 보면 다음 단계의 일을 볼 수 있으며, 당신에게 점화해 줄 수도 있다. 아직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다. 최후의 단계에서도 여전히 당신에게 점화해 줄 수 있다. 당신이 아무리 높게 수련했어도 모두 여기에 있다. 대법제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두 여기에 있다. 당신이 표면의 글자를 찾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뒤집어 넘겨도 찾아내지 못한다.

제자: 사부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영원히 사람의 몸을 얻음이 불조이노라(永得人身是佛祖).”입니다. 맞습니까? 제자는 사부님께 허스(合十)로서 인사드립니다.

사부: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 내가 말한 법에 대해 무슨 정의를 내리지 말라. 나는 당신에게 내가 말한 것이 어느

수록 내가 말해낸 법과 아래의 이치는 갈수록 높게 승화되어 중간과정을 말하지 않으면 곧 이해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원용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法輪(파룬)에 작은 것이 있고 큰 것이 있으며 더욱 큰 것이 있는바,法輪(파룬)은 우주와 마찬가지로 원용한 것이다. 그러나 더욱 큰 천체에는 여전히法輪(파룬)이 있고, 더더욱 큰 천체에 또 있으며, 더더욱 큰 천체에 역시 있다. 천체가 얼마만큼 크면法輪(파룬)도 그만큼 큰 것이 있으며, 상층천체 그곳에 가면 더욱 큰 이치가 있다. 그러나 대궁(大穹)의 이치는 총체적으로 연계되며 원용한 것이기에 천체 중의 법리는 층차의 변화에 따라서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난다.

제자: 대만에서 중국의 그 사악한 우두머리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웃 사람 웃음)

사부: 그것이 당신을 박해했으면 그것을 고소할 수 있는데, 그건 고소 못할 것도 없다. (박수) 오로지 법원에서 수리(受理)하기만 하면 당신은 고소할 수 있다.

제자: 제자가 반복적으로『전법륜』을 통독함에 정법부분에 관련된 내포를 깨닫지 못하는 감을 항상 느끼는데, 오성

체가 이 환경 범위 내에 있는 생명인데 마치 스펀지가 물속에 잠겨 들어간 것과 같다. 이 세간(世間)은 마치 물과 같으며 미시적인 생명과 물질은 마치 물의 밀도와 같이 많은 것이다. 당신의 몸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의 범위 내에는 무척 방대하고 거대한 미시적인 생명이 있는데, 당신의 신체와 대응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수련 중에서 단지 자신 자신의 층층의 신체가 수련되는 것만이 아니며, 당신 신체의 층층 입자의 세포도 모두 당신의 형상이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 입자의 세포 위를 확대해보면 또 무수한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형상이 있는 생명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럼 이런 세포가 얼마나 많겠는가? 사실 당신의 세포는 미시적 생명에 대해서 말한다면 바로 그 별(星球)이다. 어찌 세포에만 그치겠는가? 세포는 또 얼마나 많은 미시적인 입자로 구성된 것인가? 당신 형상의 세포 또는 미시적인 입자는 바로 그 입자 중의 일체 생명의 왕으로서, 그 속의 무수한 생명은 모두 그의 관할을 받는다. 만약 당신이 수련을 잘하지 못하면 당신 자신의 세포도 잘 수련되지 못할 것이다. 당신이 잘 수련했다면 당신 자신의 세포도 잘 수련될 것이며, 당신 자신의 세포가 관할하는 범위 내의 생명도 잘 수련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생명이 수련성취 된다면 얼마나 많

은 생명을 수련성취 시키겠는가?!

신이 보면 생명이 커서 진귀하고 생명이 작아서 진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당신들 알다시피 무척 미시적으로 작은 세계 속에도 부처가 있다. 생명은 크고 작고에 달린 것이 아니며 마찬가지로. 구조는 어떤 구별이 없으며 단지 구성된 입자가 그의 형태의 대소를 조성했을 뿐이다. 생명은 평등한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만약 이 한 사람이 제도 되어 수련성취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무량무계(無量無計)한 생명이 수련성취 될 것인가? 제도 될 것인가?! 그러나 수련성취 되는 과정 중에서 얼마나 큰 지혜와 얼마나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 그 무수한 미시적이고(微觀) 거시적인(洪觀) 속의 생명집단 중의 매 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마치 당신을 제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무엇을 부처의 은혜가 가없이 넓다(佛恩浩蕩)라고 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을 제도할 적에 사람을 제도하는 부처인 그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겠는가? 그 한없이 미시적인 당신의 모든 일체와 대응하는 중생을 위해, 그들을 마치 당신들의 수련과정 중과 마찬가지로 먼저 신체를 조절해 주기 시작하며 당신에게 법을 얻게 하며 당신들에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의 업력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얼마나 거대하

까 아니면 무슨 다른 원인이 있습니까?

사부: 구세력의 최후의 요소는 정법 자체에 대해서 사악하고, 사(私)를 위하며 정법 자체에게 설치한 우주의 거대한 난(難)이다. 중간과정에 있는 구세력의 못 신들에게는 모두 그 구체적인 부동한 층차에서 그들이 갖고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배치가 있기에 매 층마다 모두 정법의 성공을 배치했던 것이다. 그러나 법의 위덕으로 말하면 구세력은 위의 한 층이 아래의 한 층을 소멸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정법의 일에 누가 참여했다면 곧 누구를 소멸하는 것으로서, 이는 필경 우주의 대법이고 어느 한 층의 중생도 와서 좌우지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최후의 구세력이 사악하다고 말한 이유는 정법이 최후를 지나갈 때, 그 자체는 단지 정법에게 설치한 거대한 난에 불과하며 다른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주가 정법하기 전에 그것들에게는 그것들의 타산이 있었는데, 바로 사(私)를 위하고 자신을 위하는 것이다. 나는 일부분제를 말하기만 하면, 말하기 시작한 후에는 매우 크고 매우 긴 시간을 점하게 된다고 느낀다. 당신들이 제출한 각 문제를 내가 상세하게 말해 주려면 모두 며칠을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가 관련되는 과정은 높은 층차로 올라갈

지를 버린 그것은 단지 그가 잘못해서 기연(機緣)을 잃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로 안 되고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신은 그를 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사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나는 중생들이 역사상 범한 일체의 과오를 헤아리지 않으며, 오직 정법 중에서 대법에 대한 이 생명의 태도만 본다고 말했다. 층층의 중생들을 모두 이렇게 대했다. 그러나 그 생명이 정말로 대법제자를 박해했고 정말로 대법에 대하여 좋지 않았을 때 그것들은 지옥 속에서 새로운 빛과 옛 빛을 함께 결산한다. 왜냐하면 구도할 수 없는 생명들은 이전에 진 죄를 갚지 않으면 안 되기에 그들로서는 새로운 빛, 옛 빛을 함께 갚아야 한다. 대법제자들은 ‘眞(眞)·善(善)·忍(忍)’을 수련하므로 중생을 자비롭게 대해야 한다. 보면 자비롭게 대하고 자료를 보지 않으면 자비롭게 대하지 않는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 또한 안 되는 것이다. (웃으심)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꼭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대법제자의 자비이다.

제자: 여쭙겠습니다. 구세력을 초월한 최후의 그 생명의 우주의 요소는 정법 중에서 어떤 상태입니까? 그들은 우주가 정법을 하기 전에 스스로 구원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

고 섬세하며 방대한 작업인가! 이를 자비심이 없이 해낼 수 있는가? 그러므로 속인이 어찌 ‘부처의 은혜가 가없이 넓다(佛恩浩蕩)’라는 그 몇 글자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라. 한 사람이 수련성취 되었다면 그것은 한 방대하고 거대한 체계가 수련성취 된 것이다. 내가 방금 말했는바, 나의 말이 마치 농담인 것 같다. 오로지 한 사람이 수련성취 되었다면 나는 이 사람에게 우주를 이루라고 할 것이다. 그의 천체가 아무리 커도 나는 그 우주 속의 일체 구조가 그의 신체 범위 내에 모두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곧 이렇게 말했는데, 당신들은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 사부는 할 수 있다. 이 뜻을 말할 뿐이다. 때문에 당신들 대법제자들은 몸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두 그 곳의 생명들에게 무한한 복을 갖다 줄 것이며, 그들에게 장래의 기초—장래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기초를 닦아 놓을 것이다. 바로 이러하다.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는 정법시기(正法時期) 대법제자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용하고 물건을 사용하는 방면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부: 그렇다. 정법시기에는 특수한 정황변화가 있다. 당신들 개인수련의 그 역사에는 이미 한 선이 그어졌다. 그

단계는 바로 수련이고 반드시 이렇게 걸어야 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형식과 과거의 사회형식은 다르다.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현대과학에 의해 수많은 현대화된 교통수단과 여론도구가 조성되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라. 더욱이 이 여론도구들은 한 사람이 한 곳에서 한 말을 전 세계에서 곧바로 동일한 시간에 알게 하고 듣게 하고 보게 하는바, 이 영향은 매우 크다. 구세력을 놓고 말하면, 사악들은 이런 물건들을 이용해 박해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대법제자들은 입 하나에 의지하여 말하기에 어떤 때는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느낀다. 물론 당신들은 일당십, 일당백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필경 전체 국가기구로 만들어낸 거짓말과 사악을 폭로하기에는 여전히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속인의 이런 여론도구를 이용하여 법을 실증하고 사악을 폭로하며, 중생을 구도함에는 원칙상 잘못이 없다. 그것은 현대과학이 이미 이런 특수한 사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법을 실증함에 일부 자금으로 이런 일들을 해야 함이 필요하다.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오늘날까지 이 일체는 이미 곧 결속되는데 우리는 어떤 한 국가, 정부, 조직, 회사의 돈을 한 푼도 가진 적이 없으며, 우리의 모든 일들은 모두 대법제자가 자신의 월급수입으로 자신의 소득으로 했다.

제자: 지금 속인 음악가가 참여하는 박해를 중지하는 것과 관련된 음악회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부님께서는 속인이 참여하는 이런 유형의 음악회에 대하여 어떤 의견이 있습니까?

사부: 의견이 없다. 속인이法輪大法(파룬파파)가 좋다고 말하려 하는데, 말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건 문제가 없다. 여기에 와서 일부 속인의 것을 표현하려는 것은 당신들이 주의해야 한다. 어떤 것은 대법제자가 주최한 음악회에서 같이 출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론 일부 고전음악이라면 무슨 문제가 없으며, 근대 음악이라면 말하기가 어렵다.

제자: 속인이 대법자료를 버리는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사존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신성한 글귀, 부호이기 때문입니다.

사부: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두 중생을 구도하려는 것인바, 그 진상자료도 포함한다. 전단지를 나눠줄 때 사람들이 버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점을 대법제자로서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나 속인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 하며 여전히 자비로 대해야 한다. 사람이 전단

최고이며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것은 이미 끝까지 말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아직 끝에 이르지 못했다. 왜 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가?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르지 않는가? ‘공(空)’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무(無)’라고 부르지 않는가? (못사람 웃음) 이 뜻이 아닌가? 그러므로 무엇이든 다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 당신이 미시적이고 무한히 미시적인 곳으로 추적해 내려가면, 당신은 그것이 또 있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생명의 존재 형식과 아래 천체의 물질 요소가 존재하는 차이는 상당히 크다. 그 이치도 같지 않다. 마치 상호간에 전혀 같은 일이 아닌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또 있다.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정도에 이르면 그것이 또 없어진다. 그런 다음 어떤 정도에 이르러 당신이 추적해 내려가면 또 있고 더욱 미시적인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당신이 인간의 언어로 말하고 인식한다면 이해할 수 없다. 어떤 더욱 큰 범위에 이른 다음 나타난 차이는 더욱 크며 더욱 별개의 일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말해 보라. 그가 어떤 상태인가? 그건 정말로 인간의 언어로써는 형용할 수 없다. 최후의 생명마저도 순결하지 못하면 바로 일체가 다 안 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

구세력이 억제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해야만 당신들이 대단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당신들이 법을 실증할 수 있음이 대단하며, 위덕을 수립했다고 한다. 그러므로 구세력은 사악하게 나의 정법을 교란했고,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함을 교란했으며, 또한 세상 사람들의 대법에 대한 지지를 좌우시켰고, 필사적으로 사회의 자금 내원을 가로막았다. 대법제자들이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경제적으로 줄곧 아주 어려웠으며 심지어 어떤 수련생들은 생활상에서도 아주 어려웠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법을 실증하고 있으며 대법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대단하다. 그러나 구세력의 배치를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엄숙한 일, 전반 우주가 정법하고 있으며 신우주(新宇宙)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 법은 이미 있었던 것으로, 나는 이 원용(圓容)한 대법을 가지고 왔다. 층층의 중생들이 법에게 무엇을 다져줄 필요가 없고 층층의 중생과 속인들이 대법에게 무엇을 주는 것을 더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구세력이 과거의 역사 중에서 형성한 관념이며 형성한 이런 요소인데, 그것들은 이런 괴(壞), 멸(滅) 시기의 구(舊) 법리를 이용하여 정법을 교란하고 있으며 일으킨 것은 모두 파괴 작용이다.

비록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데,

당신들도 월급 수입에 의거하여 생활하는 수련생에게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 원칙은 수련생 속에서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나는 이미 했다. 대법제자들 중에는 장사하는 이가 있고 어떤 이는 돈이 조금 많은바, 그들이 자원적으로 돈을 내서 일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적절한 한도를 지켜야 한다. 우리 일반적인 수련생들은 자신이 법을 실증함에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데 이는 원칙상 문제가 없는데, 무슨 말을 할 것도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수입으로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위덕이다. 대법제자가 특수한 정황에서 공동으로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 말한다면 당신들이 매스컴 회사를 설립한다든가 하는 등등 공동으로 자금을 모아서 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역시 무슨 잘못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대법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는 대법제자들 자신이 사회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기에, 그것은 사회적인 사업이며, 대법제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하는 것이지 대법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대법제자는 진상을 알리는 편리한 여건을 창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이렇다 해도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데, 역시 함부로 일반 수련생들에게서 자금을 모금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좀 부유하거나 생활적으로 어떤 영향도 받

후의 그 생명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직접 그를 욕하는 것과 같다. 당신들 알다시피 ‘최후’라는 이 말은 어떤 층차에서는 변하는데, 뜻이 변한다. 어떤 수련생이 나에게 ‘1 더하기 1은 2’는 하늘에서 진리인가 아닌가, 하고 물었다. 하늘에서는 사람의 사유논리가 아니다. 최후에 이르러 그것의 함의는 변하는 것으로, 곧 그런 것이 아니게 된다. 우주는 얼마나 크고, 천체는 얼마나 크며, 최종적인 궁체(穹體)는 얼마나 큰가. 가령 그 일체가 모두 부패되었다면 그건 틀림없이 그에게 원인이 있다. 방금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비록 나의 사상이 그에 대해 말했지만 인간의 언어는 그에게 말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며 분명히 알고 있지만 별 관심이 없다. 그는 당신들이 전혀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언어 개념은 유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말하면 도(道)는 무(無)를 말한다. 그는, 도가의 이론에 따르면 무극(無極)이 태극(太極)을 낳고, 태극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팔괘(八卦)를 낳았다고 생각한다. 무극에 도달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최고(最高)라고 여기며 혼돈 상태이고 혼돈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다. 그러나 또 인식이 더욱 높은 도가 말하기를, 혼돈마저도 없으며 빈 것인데 그것이



웠는데 당신이 그에게 즉시 대법제자가 되라고 하고, 들어온 다음 당신이 그를 데리고 법을 실증하는 일을 하면 구세력이 교란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구세력은 아주 강한 구실이 있다. 즉 말해서, ‘시간이 부족하고 그가 표현한 마음 역시 것처럼 강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가 대법제자가 되려는 마음도 그리 강하지 못하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들어오기가 아주 어렵다. 당신이 그에게 대법제자 처럼 대법의 일을 하라고 하면 그 구세력이 교란하는데, 이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나 전부가 완전히 이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상이 있다. 또 일부 속인들은 대법을 지지하고 내심에서 우리나라와 대법을 위해 어떤 일을 하는데, 이런 사람은 교란을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대법제자와 미래 사람의 수련, 그것은 한 갈래 경계선이 있다.

제자: 『북미순회설법』 중에서 말씀하신 “최후의 그 생명마저도 순결하지 않게 되었다.”는 이것은 무엇을 가리킨 것입니까?

사부: 그렇다. 최후의 생명마저도 순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다. 그러나 이 우주는 실로 지극히 커서 사람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한 최후의 그 생명 역시 다만 형용에 불과할 뿐이다. 내가 정말로 사람의 말로써 최

지 않는 사람이 좀 내서 대법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면, 이는 내가 말한 상황 내에 속하지 않는데, 필경 개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여태껏 당신들에게 무슨 회비라든가, 마치 종교처럼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것은 다 해서는 안 된다.

제자: 선(善)을 닦는 문제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일들을 잘하지 못함이 모두 선(善)을 닦음이 부족하여 조성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부: 이 말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하는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될수록 구도하고 선(善)해야 한다. 선(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게 중생을 구도해야 한다. 이번 박해 속에서 사실 피해를 가장 깊게 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이다. 이 사악한 생명들은 이번 박해를 이용하여 미래 세상 사람들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비로워야 하고, 그들에게 진상을 알려 그들을 구도하고 그들이 법정인간의 그 시각에 도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당신들이 발정념 할 때 처리한 것은 절대다수 모두 각 개 공간의 가장 나쁜 생명들이고, 또한 세상에서 구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는 그런 악경(惡警)들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것들에 대하여 특히 다른 공간에서 인류를 파괴하는 난잡한 생명에 대하여 나는 그것은 봐줘서는 안 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무슨 선(善)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악(惡)을 사용하지 않으며 더욱이 악으로 악을 다스려서는 안 된다. 세인을 해치고 중생을 해치고 대법을 파괴하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바로 입장(立掌)하여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물론, 대법제자로서 당신들은 선(善)을 닦아야 하고 당신들은 악의 그 일면이 없다. 그러나 마땅히 제거하여 소멸시켜야 할 때에는 바로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 화낼 필요가 없고 또 그것에 대하여 악하고 모질게 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는 마찬가지로 자비롭게 발정념 하여 마땅히 있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바로 이러하다.

제자: 우리는 캐나다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2년 간 소송했지만 진전(進展)이 너무 늦습니다. 우리가 잘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부: 아주 잘했다. 나는 우리가 세간의 득실을 구하지 않는다고 늘 말하는데, 그렇지 않은가? 나는 일을 함에 과정을 가장 중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에게 진상을 알게 할 수 있고 과정에서 세상 사람을 구도 할 수 있고 과정 중에

사부: 일깨워 주는 것은 괜찮으나 당신들이 마스크를 통해 공개적으로 말하면 속인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말할 수 있으며 그들을 일깨워 줄 수 있다. 이는 문제가 없다. 많은 사람이 이 과학으로 만든 사회에서 신을 믿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의 의학 역시 현대 과학의 일부분으로서 당신이 이런 것을 말해도 그는 아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사악은 또 이 기회를 틀어쥐고 요언을 날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사람들에게 이 문제를 밝혀줄 수 있다.

제자: 사부님께서서는 우리들이 현재 미래 수련자의 엘리트를 선택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의 문제는 제 주위에 대법을 지지하는 일부 친구들이 특히 대법을 위해 일부 좋은 일을 할 때 그들이 곤란을 느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동수가 말하기를 일이 생기면 반드시 당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몹시 불안합니다. 아니면 구세력의 박해입니까?

사부: 매우 확고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가 지금 대법으로 들어오기는 아주 곤란하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공을 배

당신이 그의 입을 막으면서 어떡어떡하다고 한다면 모순을 더욱 더 격화시킬 수 있다. 우리들은 자기 자신의 표현을 좋게 하고 자비롭게 일체를 대해야 한다. 당신은 그와 다투고 논쟁할 필요가 없다. 사람은 명백한 일면이 있고 사람의 표면 역시 감화될 수 있어 그는 저절로 당신이 좋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수련생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다. — 누가 법을 파괴하면 자신의 마음이 아주 괴롭다. 그럼 누가 대법을 파괴하면 당신은 그에게 말하라. 제도되지 못할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제도할 수 없는 사람은 더는 상관하지 말라. 누구에게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고 그의 입을 막아야 할 필요도 없다. 정말로 제도하지 못할 사람은 방법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나타난 전염병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처리하는 것인데, 제도할 수 없으면 그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세력이 사람을 도태시키는 것이다. 물론 바른 신(正神)도 악인을 도태시키고 있다. 이처럼 큰일은 물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세력은 감히 하지 못한다.

제자: 현재 진상을 알리는 중에 우리는 속인 중에서 일어난 일, 예컨대 전염병 뉴스를 진상을 알리는 한 가지 내용으로 삼아 대량으로 중국인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서 그 진상을 폭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에 그에게 형(刑)을 선고 받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세인을 구도하고 사악을 폭로하는 가장 좋은 효과에 도달할 수 있느냐를 보아야 하며, 또한 사람들에게 사악의 결말을 보도록 하며, 그것을 겁에 질려 떨게 해야 한다. 물론, 속인 속에서 그가 잘못했다고 판결하는 그것은 세상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옳았음을 증명하게 된다. 이는 물론 좋다. 그러한 효과에 도달하면 그것은 더욱 좋은 것이고 사부도 동의한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흔히 결과를 중시하고 이 과정 중에서 당신들이 마땅히 알려야 할 진상을 모두 제대로 알렸는가는 주의하지 않는다. 마땅히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들에게 모두 알게 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법을 실증하고 진상을 똑바로 알리는 것이다.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면 당신들은 가서 알리며 결코 단순히 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알리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소송이 어디에서 지체되면 그곳은 반드시 진상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아마 그 소송은 자연스럽게 추진될 것이다. 만약 이 과정 중에 여러분들이 모두 인식했고 세인들도 구도 되었으며, 심지어 그들이 이용당한 결과와 이용자의 사악함을 알고 그들 또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그 소송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며 기어코 그를 어

떻게 다스러야 할 필요가 없다. 그가 잘못을 인식하고 보상을 해 주었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었으면, 그러면 된 것이다. 비록 대법제자들이 세상 사람을 구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지만, 그 아주 사악한 것에 대하여 여전히 정말로 놓아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자비로 중생을 구도하는 각도에서 말하는데, 주요하게는 과정 중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잘해야 함을 중시하며 그 결과가 어떠하면 그런 것이다.

제자: 제자는 장기간 병업의 교란을 받고 있고 특히 정공을 연마하거나 발정념 할 때 제가 의념으로 사상을 집중할 때 특히 심합니다. 어떤 때는 호흡이 곤란하고 아픕니다.

사부: 사부는 개인을 겨냥하여 설법할 수 없고 나도 완전히 당신의 상황을 겨냥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일부 수련생들은 잘못된 상황이 나타난 적이 있지만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 주는바, 대부분 두 가지 원인이다. 하나는 신수련생으로서, 당신이 수련하는 그 과정과 당신이 법을 실증하는 그 과정은 함께 융합되었으며 당신에게 따라잡아 올라오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수련은 법을 실증하는 일을 동반하여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바로 교란당하는 것이다. 교란 당함을, 당신은 늘 누가 교란하면 나는

이 자비롭게 중생을 대하고 당신이 자비롭게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면 당신은 곧 대법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며, 당신은 능히 대법의 존엄을 수호할 수 있다. (열렬한 박수)

대법의 존엄은 속인의 수단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 대법제자들 개개인의 진정으로 자비롭고 선(善)한 표현으로 가져오는 것이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사람의 수단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는 자비 중에서 생긴 것이고, 중생 구도와 당신의 수련 중에서 체현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정체적으로 수련을 모두 잘하면 세상 사람들은 대법이 좋다고 말할 것이고 모두 대법을 존경할 것이다. 이전에 나는 우리 책임자들과 말한 적이 있다. 나는, 대법의 책임자는 속인의 관리에 의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의 대법에 대한 그 마음과 당신 자신의 수련에 대한 책임에 의거하며, 이는 당신 자신이 수련을 잘하여 얻는 것으로, 남들이 당신에게 탄복하고 당신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에게 잘못이 있는 데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당신은 잘못이 없으며 당신이 괜찮은 것으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당신을 업신여길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인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법(大法)이 세상 사람들 앞에 놓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은 좋지 않다고 말하는데, 당신이 속인의 방법으로 그와 논쟁하고

의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이다. 수련이라, 그럼 곤란에 의해 겁을 먹지 말아야 한다. 어쨌든, 더 어려울지라도 사부가 당신에게 준 길을 반드시 걸어올 수 있다. (박수) 당신의 心性(썬썬)이 제고되어 올라오기만 하면 당신은 곤란을 박차고 지나올 수 있다.

제자: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중국영사관 앞에서 연공할 때 자신의 신의 일면이 자연히 사악을 소멸해 버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인식이 정확한 것입니까?

사부: 이는 원칙적으로 맞다. 이런 것이며 이는 문제가 없다. 대법제자가 거기에 앉으면 수련이 잘 된 신의 일면도 거기에 앉은 것이 아닌가? 이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역시 모두 이 점에 집착하여 만족해서는 안 된다. (웃음)

제자: 제자는 중생에게 자비로운 것과 대법의 존엄을 수호함에 평형을 이루기가 몹시 어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부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당신이 대법의 존엄을 수호하려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수호할 것인가? 당신이 그의 입을 막을 것인가? 당신이 그와 논쟁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다. 당신

그것을 소멸해야겠다고 생각하며 누가 교란해도 다 안 된다고 여긴다. (웃음) 그러나 당신은 왜 생각해 보지 않는가. 왜 당신을 교란하는지를, 무엇 때문에 당신을 교란할 수 있는지를. 자신에게 무슨 집착이 있는 것이 아닌가? 내려놓지 못한 것은 없는가? 무엇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지 않는가? 진정한 원인은 자신의 이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틈을 탈 수 있다! 당신은 사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설명 한 속인이 오늘 “파룬파파는 좋다(法輪大法好)”라고 한마디 외칠지라도 사부는 그를 보호하는데, 그가 이 한마디를 외쳤기 때문이며 사악 속에서 내가 그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물며 당신들은 수련하는 사람이 아닌가? 또 극소수 수련생들은 정말로 불치병에 걸렸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라. 법을 배우기 전의 중환자들과 불치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대법을 배운 후 모두 좋아지지 않았는가. 그러나 무엇 때문에 일부 수련생들은 오히려 안 되는가? 설마 대법이 중생에게 차별이 있단 말인가? 내가 사부로서 수련생에게 다르게 대하는가? 나는 정말로 당신들에게 물어보겠다. 당신은 진수(眞修)하고 있는가? 당신은 정말로 대법의 요구에 따라 했는가?! 진상을 똑똑히 알리는 중에서 法輪功(파룬궁)을 박해하는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속인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으로 대법제자의 각도에서 법을 실증하고 중생을 구도하고 있는가? 구세력은 일부 사람들이 들어오도록 배치했는데, 무엇 때문에 대다수는 되고, 무엇 때문에 자신은 안 되는가? 나의 법은 당신에게 말해 준 것이 아니란 말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잘못되었다고 느꼈을 때 반드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자신이 어디가 잘못되어 사악에 의해 틈을 타게 되었는가를 보라. 잘못되었으면 마땅히 인식하고 마땅히 잘 해야 한다. 당신들은 잊지 말라. 정법시기 대법제자들이여! 당신들은 법을 실증하러 온 것이다! 수련은 고생스러운 것이며 대법을 실증함에 사악하고 더욱 사악한 곳에서 걸어서 넘어갈 수 있는 자는 바로 중생의 왕일 것이다.

제자: 발정념 할 때 첫 번째 5분간 사부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구결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사부: 발정념 할 때 늘 구결을 읽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한번 읽으면 되고, 작용을 일으키는데, 특수한 정황은 제외한다. 당신이 조용해지지 않음을 느껴 정념을 다시 조종하는 그것은 괜찮지만 역시 잠시인 것이다. 사실 정말로 조용해질 때 그 일념(一念)은 천지를 뒤흔들기 충분하며, 못하는 것이 없고 단번에 정말로 당신이 뒤덮은 범위 내의 일체를 모두 고정하고 억제하는 것과 같다. 당신은 마치 산처

너스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박수) 방법이 없었다. 그 파출소는 어디에 가두어 두어야 할지 방법이 없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마치 사람의 표현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니다. 거기로 수련된 것이며 진정하게 그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잡혀 왔으니 나는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왔다면 나는 법을 실증하러 온 것이다.’라고 하자. 그 사악 그것들은 두려웠다. 게다가 현재 사악의 숫자는 무척 적어졌고 소멸할수록 그것들은 더욱 적어진다.

제자: 7.20 이후에 법을 얻은 제자들은 정체적인 제고와 자신의 수련을 어떻게 파악해야 합니까?

사부: 수련이라, 당신은 『전법륜』 중의 요구에 따라 수련하도록 하라. 이는 문제가 없다. 곧 정상적으로 수련하며 단지 마난(魔難)에 부딪혔을 때에 아마 현재의 법을 실증하는 속에 용해될 것이다. 대법제자는 모두 법을 실증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소업(消業)하는 현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런 마난이 나타날 수 있다. 7.20 이후에 법을 얻은 사람은 되도록 잘 해야 한다. 사실 당신은 결코 대가를 더 많이 치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7.20 이전에 법을 얻은 제자, 그들은 이미 대가를 치렀고 이미 한 기간

럼 해낼 수 있었다면, 내가 보기에 그 노동교양소 그것이 감히 당신들을 거기에 수용할 수 있었겠는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환경 속에 있지 않아 말하기는 쉬운 것 같다. 그러므로 사부가 여기에서 설법할 때 그곳의 일을 말하고 싶지 않다. 그곳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다 해도 당신들은 당신들의 미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은 장래의 과위가 그 기초로 위대한 위덕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당신은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이 법을 실증한 신과 부처의 정과(正果)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이로써 사람의 것을 모두 내려놓았는가?! 정말로 금강부동(金剛不動)하며 집착이 없고 누락이 없는가?! 정말로 그렇다면 당신들은 그 환경이 어떠하겠는가를 다시 보라.

명혜망에 문장 한 편이 실렸다. 어떤 수련생이 줄곧 대법의 진상을 말하면서 “대법은 좋습니다(大法好).”하며 외치는데, 어디로 끌고 가든, 악한 경찰이 무슨 말을 하든, 다 듣지 않으며, ‘네가 나를 모질게 때리고 욕해도 나는 여전히 이러할 것이다.’라고 했다고 한다. 그 노동교양소는 겁이 나서 “우리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 서둘러 되돌려 보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내가 그녀를 전향시키지 못한다면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 줄 것이며, (못 사람 웃음) 그것들은 또 보

럼 단번에 그것들을 모두 억제할 수 있다. 사상이 늘 안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안정하지 못하면 그 점을 해낼 수 없다.

제자: ‘법정(法正)’, ‘여래(如來)’등의 경문을 상응하는 방광명(放光明) 프로에서 방송하여 속인에게 보여주어도 괜찮습니까?

사부: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책은 모두 시중에서 팔리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당신은 마땅히 얼마큼 방송해야 하면 그만큼 하고 모두 당신 자신이 파악할 일이다. 사부는 단지 문제가 없다고 말할 뿐이다. 또한, 사부의 한마디를 가지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수련생에게 사부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어떠어떠해야 한다고 강제하지 말아야 하는바, 안 된다. 왜냐하면 매스컴을 하기 때문에 마땅히 어떻게 잘 배치했으면 다 함께 협조(協調)하여 그것을 잘 조정해야 한다.

제자: 어느 날 제가 진상자료를 배포할 때 북경 여행단의 한 선생이 저한테 만약 사부님을 뵈게 되면 그를 대신하여 사부님께 문안을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춘 농안(農

安) 대법제자들을 대신하여 사부님께 문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진상을 알게 된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다. 내가 그 해 북경에 있을 적에 온 북경의 사람들이 모두 나를 알고 있었다. 그가 수련하든 수련하지 않든 모두 리대사(李大師)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웃음) 비록 박해가 대단히 심하지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모두 명백하다. 또 수련생들은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역시 대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진상을 알게끔 했다. 국내와 해외 수련생이 모두 이렇게 했는바, 사람들로 하여금 이번 박해의 사악함을 더 잘 인식하게 했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대법에 탄복하고 대법제자를 존경하게 했는데, 이는 필연적이다.

제자: 일부분 수련생들은 전심전력으로 정법에 투입되어 먹고 자는 것도 돌볼 새가 없으므로 연공을 아주 적게 합니다. 그리하여 일부분 그리 바쁘지 않은 수련생도 연공을 하지 않는데, 그들은 연공을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부: 당신들은 이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데, 모두 알아 들었는가? 대법제자는 세 가지 일을 잘해야 하며 모두 반드시 잘해야 한다. 공을 연마해야 하는데, 당신이 원만을 이루는 그 날까지 공을 연마해야 하고 법 공부를 해야 하는 것

해도 나는 배운다. 나는 너의 사악한 말을 듣지 않는다. 너는 생사를 갖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닌가? 물론 사부가 여기에서 하는 말은, 당신들 수련인에 대하여 하는 말이다. 그러나 사부 역시 말하고 싶지 않다. 속인이 듣는다면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줄 것은 당신이 정말로 생사를 내려놓으면 당신은 무엇이든 모두 다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수)

신의 눈에는 구세력의 배치도 이러하다. 당신은 한 손으로 사람을 잡고 놓지 않고, 다른 한 손으로는 또 부처를 잡고 놓지 않는데, 당신은 도대체 어느 것을 가지려고 하는가?! 정말로 내려놓을 수 있으면 상황은 달라진다. 박해를 심하게 받은 지역, 파괴를 심하게 받은 곳, 그곳의 수련생은 정말로 마땅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어떤 수련생은 박해가 이처럼 긴 시간 지속되자 원래 표현이 괜찮은 그러한 사람들도 안 되게 되었다고 말한다. 내가 보건대 그렇지 않다. 진짜 금은 갈수록 드러나게 마련이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당신이 정말로 생사를 내려놓고, 어떤 집착도 다 없다면 갈수록 안 된다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전향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당신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 노동교양소의 몇 백 명, 천여 명 사람들이 모두 이처



제자: 갇지 않은 지역 수련생들의 부동한 층차의 법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부: 아마 그럴 것이다. 환경이 갇지 않고, 수련생 수도 갇지 않아 수련생들이 서로 교류하고 법 공부를 하는 데 일정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지하게 책을 보고, 진지하게 배운다면 당신이 모르는 것을 사부의 법신이 당신에게 점화해 주고, 당신에게 명백하게끔 할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은 법 공부를 할 때, 무슨 마음을 품고 배우지 말라. 반드시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히고 정말로 법 공부를 해야지 어떤 목적을 품고 배우면 안 된다. 또 법 공부를 할 때 정신을 팔면서 사상 중에서 다른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아무 것도 배울 수 없다. 법 공부는 곧바로 법 공부로서 어떤 교란도 법 공부에 영향 주어서는 안 된다.

제자: 대륙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노동개조를 당하는 수련생들은 사악이 그들로 하여금 법 공부와 연공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련할 여건이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원만을 이룰 수 있습니까?

사부: 나도 이런 수련생을 늘 본다. 네가 나보고 연마하지 말라고 해도 나는 연마하고, 네가 나보고 배우지 말라고

으로, 대법제자의 세 가지 일을 당신들은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제자: 사부님의 시사(詩詞)를 출력하고 출판하여 어린이들에게 주어도 됩니까? 수련생들이 그린 동작 그림을 삽화로 해도 됩니까?

사부: 어린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 만약 수련생이 미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만약 속인이 그랬다면 반드시 대법제자가 점검해야 한다. 그렇다. 당신들 이 자리에 앉은 때 사람을 확실히 나는 대법제자라고 부른다. 그러나 당신 자신이 한 것은 그야말로 대법제자답지 못하여 당신한테 점검하라고 하자니 그것도 곤란하다. (웃음) 이런 일들을 내가 보건대 그래도 현지의 불학회(佛學會)에서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제자: 진상을 알리는 중에서 늘 자신의 지혜가 부족함을 느끼는데, 이는 저의 수련상태가 좋지 못해서입니까?

사부: 지혜가 부족한 경우는, 흔히 당신이 조급해 하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일을 빨리 하려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다른 집착이 나타나서 조성된 것이다. 사실 많은 일이 당신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온하고 온화하게 말하고 이야

기하며 이지적으로 대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지혜가 샘물처럼 흘러나올 뿐만 아니라, 구절마다 요점을 말하며 구절마다 진리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집착하고 조급해하면서 매우 강렬한 무슨 마음이 있기만 하면 지혜는 없어진다. 왜냐하면 그때 당신은 또 사람 여기로 되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되도록 정념으로, 되도록 수련인의 상태로 하면 효과가 매우 좋을 것이다.

사실 여러분이 다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정념 중에서 사상에 국한이 없으면 매우 크고 넓게 생각할 수 있어 지혜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제자: 사부님께서 방금 올해는 시끌벅적한 한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마스크 역시 박차를 가하여 진상을 알리는 것을 더욱 잘 협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부: 그렇다. 이번 박해는 거짓을 기초로 한 것이다. 현재 중국의 대 역병을 그들은 거짓말로 덮어 감추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당신들도 거짓말을 폭로하도록 하라. 法輪功(파룬궁)에 대한 박해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이다.

제자: 금년 2월 홍콩법회에서 대만 수련생 70여 명이 홍

안드립니다.

사부: 여러분 감사하다. (박수)

제자: 사부님께서 다시금 호주 대법제자들을 위해 몇 마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부: 작년에 내가 호주 수련생들에게 말한 뒤로 호주의 변화는 아주 크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하다. 이전에는 이처럼 배열했다. 미국 이쪽은 아주 잘했고, 다음은 캐나다, 그 다음은 호주, 그 다음은 유럽이었다. 지금은 유럽이 어떤 상황에서는 호주를 능가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사부는 비평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웃음) 내가 생각하기에 마땅히 좀 더 잘해야 할 것인데 정말로 이러하다. 또한 문득문득 문제가 나타나곤 한다. 어떤 곤란에 부딪혔을 때 피해가서는 안 된다.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가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고 당신들이 가서 진상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당신들은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라! 일단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당신들이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당신들은 그것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의 표현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말이다.

사부: 이런 일은 역시 모두 대법제자가 법을 실증하는 일이다. 일부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특수한 상황에서 나는 당신들에게 말해 주겠다. 사실 미국 법정에다 그것을 고소했는데 미국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지 않았다. 현재 유럽 그 쪽에서도 고소하지 않았는가? 그 밖에 프랑스 쪽에서는 610 두목을 고소하기도 하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것은 현재 국가 원수가 아니어서 국가원수 면책권도 없다. 우리 수련생이 말한 것도 아주 좋은데,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것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아주 잘 말했다.

제자: 홍콩은 23조에서 역병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수련생들 중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대법제자로서 우리의 역사적 사명을 더 잘 완수할 수 있습니까?

사부: (웃으심) 구체적인 일을 당신들이 꼭 나에게 말하고자 한다면 당신들이 시간을 마련해 나에게 구체적으로 말하도록 하라. 우리 여기에서는 말하지 말자.

제자: 친왕다오(秦皇島), 산하이관(山海關), 단둥(丹東), 난창(南昌), 다롄(大連) 대법제자들이 사부님께 문

콩 정부에 의해 송환 당했습니다. 대만과 홍콩 수련생들은 법적 절차를 통해 홍콩정부의 위법행위를 고소했습니다. 사부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일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 잘할 수 있습니까?

사부: 사실 이 일 자체가 세상에 조성한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당신들은 잘했다고 말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왕 법정에 고소했다면 우리들은 진지하게 해야 한다.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곳에 진상을 알릴 필요가 있다. 최후 결과가 어떻든지 이 일을 통해 당신들은 더욱 많은 사람을 접촉할 기회가 있어 광범위하게 진상을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평소 당신이 기회가 없어 당신이 아무 연고도 없이 한 사람을 잡아끌어, 그에게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면 좀 쑥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 지금은 할 일이 생겼는데,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신들은 영사관이나 스파이가 무슨 일을 할까 봐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일을 만들기만 하면 당신들은 곧 그 기회를 빌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게 해야 한다. (열렬한 박수) 사실 대법제자로서는, 당신들은 오히려 그가 어떤 일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것이다. (웃음) 그가 일을 만들어 낸다면 당신들은 진상을 알리고 사악을 폭로할 기회가 있다. 그렇지 않은가? 너 사악이 오기만 하면 나는

곤 너를 붙잡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끔 할 것인데, 마침 그 것들을 폭로할 때이기 때문이다.

제자: 우리가 유럽 정부와 매스컴을 향해 진상을 알리는 일을 어떻게 개진(改進)해야 합니까?

사부: 유럽은 이 한 차례 박해에 대해 이미 아주 똑똑하게 인식했는데 다만 한 가지 원인의 제약을 받고 있다. 무슨 원인인가? 중국 정부는 ‘6·4’ 이 문제 이후에 여러 서방 나라들과 협의를 맺었다. 즉 당신이 나의 인권을 비평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 말고 배후에서 조용하게 대화 하자는 것이다. 그것은 여러 국가와 모두 이런 협의를 맺었다. 法輪功(파룬궁)의 문제도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말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국제 사회의 압력이 없어 사악한 정권은 개의치 않으며, 法輪功(파룬궁)을 박해 하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여론 압력이 없어 더욱 거리낌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사악한 박해를 모르고 일부 나라의 정부는 일부러 매스컴에서 보도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그들이 배후에서 한 대화는 모두 철저히 실패한 것으로 전혀 쓸모가 없고 사악한 정권에 의해 농락당했으며 마침내 올라미에 걸려들었다. 이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꾀 꾀집단으로서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명

석하게 인식해야 하며 어찌된 영문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은 인류의 소행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제자: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정견망(正見網)을 더 잘 운영할 수 있습니까?

사부: (웃으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사실 당신들 자신의 일이다. 당신들이 하는 일을 정확하게 대할 수 있다면 당신들의 지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정견망에 참여한 수련생들도 역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일에 나는 참여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는 것은 바로 당신들에게 법을 실증하는 중에서 당신들 자신의 위덕을 세우는 기회를 남겨 주기 위해서다. 만약 내가 먼저 말해 버린다면 당신들은 기회를 잃게 될 것이다. 난이도가 클수록 세운 위덕이 더욱 크다. 물론 당신들이 정말 문제가 있어 해결하지 못할 때, 실로 잘하지 못할 때면 내가 말하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렇지 않다. 성적은 긍정적이며 갈수록 잘하고 있다.

제자: 미 국무성의 중국의 그 사악한 우두머리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만한 힘을 쏟아야 하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십니까?